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제802호

새 안보활동 지침 마련 … 국민신뢰 회복

변화된 남북관계 반영, 국민안보의식 계도
정치중립 준수, 국가안보정책 지원 일관성

향군은 국가 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국민안보의식 계도와 국가안보정책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2018년 하반기 향군 안보활동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김진호 회장 취임 후 새롭게 정립한 향군의 안보활동과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남북 관계 진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등 안보상황에 따른 것이다.

향군은 이를 통해 먼저 국민의 올바른 안보관 확립을 위한 국민안보의식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이어 정부의 안보정책 지원 활동을 위해 전 회원이 "안보활동 3대 중점" 및 "향군 안보활동 기조"를 숙지하는 한편 호국정신 함양과 학생 및 젊은 세대의 호국안보의식 교육 강화 및 On-Off-Line 안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 및 시군구회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왜곡 · 편향된 활동과 교육을 금지하며 남북 관계와 다양한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국 특히 한 · 미관계를 고려한 전문가들에 의한 판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회의 지침하에 안보활동 및 안보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안보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향군 정체성 제정 선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 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라는 슬로건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었던 향군의 정체성을 '안보단체'로 규정 하여 보수, 진보 등 이념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순수 안보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했다.

또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해 안보활동 목표를 국가 안보단체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 활동에 두고 ▲국민안보 의식 계도 분야와 ▲국가 안보정책 지원 분야로 구분, 총 12개 항의 최적화된 '안보활동 기조'를 정립하여 지침화 했다.

아울러 주요 안보 관련 현안이 발생시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 활동 관련 의사 결정기구인 '현안 안보점검회의'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금번 4 · 27『남 · 북 정상회담 성공 기원 한마음 대회』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시됐다.

향군은 향후 안보 활동 시 새롭게 정립한 안보활동 방향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활동 3대 중점을 널리 알려 국민안보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국가 안보정책지원 분야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치우침 없이 일관된 향군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가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상반기 산하업체 경영회의

2018년도 산하업체 상반기 경영회의가 김진호 회장을 비롯하여 기획행정국장, 경영본부장, 감사실장, 각 산하기업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6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업체별로 상반기 경영실적 분석 및 하반기 경영전망,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향군, 공익활동 영역 확대

재해구호협회 · 농민신문사와 업무협약

김진호 회장과 송필호 재해구호협회장

재해구호지원 및 봉사
식량 안보 기여

향군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농민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향군은 7월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재난 · 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해 인적 ·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국내 · 외 재난 · 재해에 대한 구호 전문단체로 구호활동의 선진화와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 수행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이날 김진호 회장은 "우리나라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까지의 조직이 편성된 향군과 구호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군은 앞으로 호국안보 활동 차원에서 재해구호 활동 사업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송필호 재해구호협회장은 "전국 지회별로 운영되고 있는 향군 여성회가 그간 국가 재난 · 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한 공로에 감사드린다"며 향군 여성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7월24일 향군은 농민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정책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호 회장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농민신문과 국내 최고 · 최대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힘을 합친다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정책에도 기여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군은 농협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천만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곡물 자급 문제는 바로 안보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한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향군인신문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지난 65년 동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기관지로서, 안보정론지로서,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재향군인신문이 제작 예산 문제의 어려움 극복하고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 기관지로 거듭나기 위해 지면 개선과 함께 발간 · 발송 시스템을 바꿔 독자여러분께 새롭게 다가갑니다.

▷지면 개선

1. **월간 안보정세**
   매월 발생하는 주요 안보정세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명쾌한 해설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안보전문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 **위기극복의 첨병**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본회의 노력에 말 맞춰 각 지역, 산하업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재정확보 노력 등 위기 극복 사례를 발굴, 취재하여 모범사례로 전파하겠습니다.
3. **이달의 명 칼럼**
   독자들의 안보의식 고양과 정보 전달을 위해 이달의 명 칼럼난을 신설, 월중 언론에 보도되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칼럼, 사설 중 우수한 것들을 선정하여 게재하겠습니다.
4. **독자 참여코너 확충**
   인터뷰, 미담사례 게재 등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면에 담아 향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5. **향군 정회원 300만 확보**
   향군 정회원 300만명 확보를 위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PDF 파일 탑재, 발행부수 조정(9월호)

1. **지면 PDF 홈페이지 · 코나스 탑재**
   – 온 · 오프라인 공유, 독자 층 확대
2. **PDF 파일 탑재에 따른 발행부수 조정**
   – 월 4만부 → 1만5천 ~ 2만부(각급회 필요부수 파악 후 확정)

▷발송체계 전환, 독자관리 강화(9월호)

– 본회 → 각급회 (소포)
– 각급회 → 회원 (우편)

※ **우편발송 최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 **각급회 중심의 독자관리를 통해 발간부수 축소에 따른 효율성 강화**
※ **발간 부수 50% 축소에 따라 기존 독자 중 많은 분들이 9월호 부터 신문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홈페이지 · 코나스 탑재된 지면 PDF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앙고속관광 • 사자투어
02-738-8844 | www.SAJATOUR.com

충남도청 방문, 양승조지사와 현안 논의

김진호 회장이 7월9일 충남도청을 방문, 양승조 지사와 환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현안과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김진호 회장은 논산시청을 방문, 황명선 시장과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향군추진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회원 300만명 확보 TF 편성

향군 정회원 300만명 확보를 위한 TF가 편성된다. TF는 각 부서장과 향우산업 사장 및 시 · 도회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며 각 기능 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TF 운영은 조직복지국이 총괄, 추진평가 및 성과분석회의를 주관한다.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와 협조, 홍보영역 확대 △향군 우대가맹점 확대 △준회원, 명예회원, 여성 및 가족회원 제도 도입 △청년회원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추진하고, 예비군 중대장 및 비상기획관의 향군회장 겸직이 가능토록 협조한다.

호국안보국은 코나스 메인화면에 회원가입 배너를 개설함은 물론 안보교육시 회원가입을 독려한다.

홍보실에서는 SNS상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방일보 등 군 관련 언론매체에 정회원 혜택 및 가입홍보를 상시 협조하며 경영본부에서는 향군회원증, 교통카드, 우대가맹점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향군카드제작을 금융사와 협조해 추진한다.

각급회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향군회관 내 회원가입 안내 코너 및 행사시 부스 설치 △SNS 홍보 △향군 우대가맹점 확대 △청년 및 여성회원 확보 방안 강구해 나간다.

이번 TF는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회원 300만 명 확보를 위한 제언

향군 개혁을 통해 국민 마음 얻는 노력 필요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이자 “회원 상호 간 친목과 사회공익 증진에 앞장서는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향군 정회원이 다수 확보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본회 및 산하 각급 회에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군 정회원은 2006년도 120여만 명에서 2018년도 4월까지 12년 동안 겨우 14여만 명이 증가한 134여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더라도 향군 정회원 확보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겠다. 134여만 명 정회원이 적은 수는 아니지만 전역군인 1,300여만 명 숫자에 비하면 미비한 편이고, 정회원들의 활동적 측면에서 볼 때 소속과 책임감을 가지고 향군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 회원 수 대비 정회원 10%

총 1,300여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지만 정작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34여만 명으로 총회원 수 대비 10%에 불과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회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시스템 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직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등의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성공적으로 향군 정회원 300만 명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2017년 12월부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對 국민 설문조사 준비, 역사자료 수집, 법제와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하 시?도회와 시?군?구회, 유사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후 2018년도 1/4분기까지 추진했던 회원 확보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다각적으로 장 · 단점을 분석 후 이를 구체화 하였다.

본 연구(안)은 총 7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제2장 향군회원 변천과정에서는 최초 창설기로부터 조직 정비기, 성장 발전기, 제2도약기, 향군 재정위기, 경영 정상화 추진기, 현 환골탈태기까지 주요 추진 정책과 회원들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이러한 변천과정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제3장 정회원 관리 및 외국사례에서는 현재까지 진행해온 정회원 관리에 대해 본회 및 산하 각급 회는 물론 해외지회를 포함 살펴봤고 회비 운영 및 관리, 회원 복지혜택, 기존 “향군발전 1 · 2 · 3 운동”을 비롯한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 문제점 위주로 진단을 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내용도 논하였다.

제4장 향군에 대한 대 국민 설문조사는 총 3개월 동안 산하 각급 회 정회원, 일반회원, 비회원과 민방위 대원, 예비군, 여성 정회원 및 일반회원, 현역 장병, ROTC 후보생 등 전국 12,6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이 바라보는 향군의 모습은 ① 향군 정회원 제도 미인지와 무관심(75%), 정회원 중 본인 회원 여부 미인식(17%), 정회원 중 우대 가맹점 미인지(35%), 보수단체로 인식(30%) 등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 ② 향군에 대한 불신과 고령화 이미지(58%), ③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참여활동 미흡(44%), ④ 향군 자체 개혁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시대적 변화에 뒤처진 단체라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기존정책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큰 과업을 구상했는데 우선 핵심전략은 피동적인 회원 가입 체제로부터 자발적 정회원 가입체제로 전환이며 ① 향군의 정체성 확립과 신뢰회복 활동 지속추진, ② “젊은 향군 만들기” 운동전개, ③ 다양한 복지혜택 개발 및 제공(우대카드 / 할인 가맹점 등), ④ 다기능 통합 “앱”개발 등의 편의성 확대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를 중심으로 Road Map을 설정하였다.

제6장에서는 정회원 확보 및 관리 전략으로 향군 설립목적 충실, 주요 관련 법제 개선, 조직 및 기능 활성화, 회원의 관심과 편의성(SNS 기능) 확대 노력, 회원복지 및 권익증진,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관계기관 협조, 구체적으로 추진 할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다.

청년 · 여성층 집중 공략 정회원 확보

또한 연구(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① 정회원 가입코너 상시운영, ② 취업 알선 등의 촉진정책 반영, ③ 회원 확보 활동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④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및 적극적인 SNS활동, ⑤ 향군소개와 가입홍보 기반조성 구축, ⑥ 청년과 여성층을 집중 공략할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평상시 향군 주요 활동 및 행사와 연계하여 안보교육과 각종행사 시 정회원 가입 홍보, Konas 네티즌 활동 시 회원확보 유도, 해외지회 회원 확보 활성화, 향군 신뢰성 증진과 인식도 개선, 수시 정회원 확보 평가제 운영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연구(안)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 T/F 편성 운영(월단위 평가회의/유공자 포상/모범사례 확산 등), ② 카드사와 업무제휴, 우대가맹점 확대, 다기능 “앱”개발, ③ SNS와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④ 정회원 복지혜택 다양화와 편의성 지속추진 등은 연구(안) 추진 일정과 관계없이 우선 해결과제로 이행하게 될 때 성공핵심과 추진과정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설문에서 제시 되었듯이 국민들이 소망하는 향군 설립목적에 부합된 향군의 정체성 확립과 신뢰회복, 고령화 이미지 탈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 향군 내부의 개혁과 혁신 등 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군 정회원 300만 명이 확보되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시 비로소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서 위상확립과 “국가적 관리대상 단체”로 부상 할 것이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건전단체”로 이미지 변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300만 명이 함께 윈-윈하는 금융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된 “밝은 미래의 멋진 향군 상”이 그려 질 것이다.

향후 본 연구(안)에 대한 추진은 T/F 단에서 진행 할 것이며, 연구 자료집은 8월중 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하여 본회 각 부서 및 산하 각급회, 산하기업 및 직영사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상 배

안보전망대

3단계 북핵 해법 제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7월12일 한 세미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1단계로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회담, 즉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확인 · 보장"하고 2단계로는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한 '6자회담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합의 ·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3단계로 "6자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서 합의된 내용을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 차례로 상정해서 이를 최종적인 유엔 결의 안으로 채택 · 확정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쟁점 모호성 관리가 중요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이 7월24일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것은 쟁점사항의 모호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포괄적인 합의에서 모호성은 불가피하지만 이 모호성이 때로는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평화협정이 잉크가 바르기도 전에 새로운 분쟁을 불러오는 이유는 모호성을 둘러싼 상이한 해석 때문이다." 고 말했다.

이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상분계선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들면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수준(기존 관할 수역을 존중하고 계속 협의)을 참조할 수 있고 한미동맹 문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화협정은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평화협정은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하기 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요구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성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가 23일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전술과 관련한 경고를 발령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라며,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제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평화' 추상적 상징으로 인식

우리국민들은 '평화'를 삶의 방식, 삶의 조건이 아닌 추상적인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국민들의 평화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평화'란 단어를 제시하고 생각나는 단어 3개가 무엇인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211명(21.1%)이 '비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답했고, 175명(17.5%)은 '통일', 80명(8.0%)은 '자유'가 떠오른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과 덴마크인 812명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연상검사를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유(7.9%), 행복(6.4%), 조화(5.8), 사랑(5.4), 번영(4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하면 한국인은 평화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번영이나 번영의 측면에서 평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7월의 오피니언

북한 비핵화 운명은 어디로 가는가

북 · 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느낌이다.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을 화가 안견에게 그리게 했다는 몽유도원도 그림만큼이나 초현실적인 '트럼프 · 김정은'의 악수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하지만 빈약한 합의문을 들고 회담이 환상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낯설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후속 고위급 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못하고 '강도'라는 표현만 들었다. 협상이 비핵화의 본질에 근접하기는커녕 변두리만 맴돌고 있다.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김 위원장의 친서를 트위터에 올리는 초강수를 두었다. 비핵화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함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는 점차 저잣거리의 술안주로 전락하고 있다. 향후 북한 비핵화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우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김 위원장이 친서 공개에 놀라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로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신중하게 추진한다.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까지 최대 2년 동안 비핵화를 80% 이상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와 함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북 · 미 수교에 이르는 행복한 여정이 동반된다. 총론적이고 모호한 합의였으나 착한 이행으로 25년간의 동북아 숙원과제 해결에 서광이 열린다.

다음은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다. 북 · 미 양측의 싱가포르 합의문은 각론이 부재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비핵화의 ABC는 핵무기 및 시설의 신고와 사찰과 검증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3대 요소가 실무회의에서 해결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격이다. 악마는 정상회담의 각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잠복해 있다. 합의문의 마지막 항목인 미군 유해 발굴 사업도 금전보상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유해 발굴 대가로 총 2800만달러를 챙겼다. 정상 간 총론적 합의는 필연적으로 실무자들이 해결하기엔 갈 길이 멀다. 트럼프 대통령도 벌써 장기전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지부진 시나리오'로서 평양과 워싱턴의 동상이몽 드라마다. 앞으로 시간은 누구 편인가. 30년 독재자와 4년 중임의 지도자 간의 임기 차이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다.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벤치마킹해 핵 보유를 토대로 한 '핵 있는 평화론'의 논리를 전파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다. 모호한 합의의 종착역은 부진한 이행이다. 비핵화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초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비난을 돌파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2차 북 · 미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회담보다는 관객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흥행에는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의 본질에 다가가기보다는 뉴스를 장악하는 돌출 깜짝쇼를 통해 스토리텔링 소재를 양산할 수 있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할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검토하지 말자. 다시 북 · 미 양측 간에 말 폭탄이 횡행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옵션 시나리오가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 '강도'라는 단어를 구사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판단할 때 좋지 않은 징후인 것은 분명하다. 초유의 정상회담 이후에 거친 비외교적인 용어가 튀어나온 것은 북한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장을 통해 유감이 표현된다면 향후 비핵화 여정이 날카로운 가시밭길로 뒤덮여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1년 연장했으나 북 · 중 간 새로운 경협으로 제재는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상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북한 압박의 그물망은 점점 이완될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는 사라졌으나 '불완전한 비핵화'로 '불안한 평화'에 의한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

〈7월16일 세계일보 남성욱 칼럼〉

적도 친구도 없는 트럼프 외교… 한미동맹 리스크 대비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헬싱키 정상회담에서의 언행은 미국의 외교정책 근간을 흔드는 트럼프식 외교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계속된 오랜 갈등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과시했다. 특히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푸틴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까지 보여 미국 내에서 거센 반발까지 사고 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선 '미국의 최대 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하는 것을 보면 EU가 적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외교 노선 이탈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변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트럼프 대통령이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않는 그에게 푸틴 대통령은 죽이 잘 맞는 친구일 것이다. 반면 미국과 오랜 대서양 동맹을 맺어온 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안보적으로 미국을 갈취하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물론 개인적 본능에 기초한 트럼프식 즉흥 외교가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나 기존 국제질서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슈퍼파워 미국의 외교 시스템이 대통령 한 사람의 기질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처럼 갈팡질팡 원맨쇼처럼 보이는 트럼프식 외교에 깔려 있는 국익 최우선의 극단적 현실주의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트럼프식 외교관은 동맹관계에 있는 많은 나라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어쩌면 충돌이 불가피한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 수용이란 트럼프식 외교가 아니었다면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 놓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와 상의도 없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김정은에게 약속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식 외교는 우리에겐 기회이자 리스크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거친 파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예고된 돌발사태'에 면밀히 대비하면서 흔들림 없이 굳건한 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 간 다각적인 인적 유대와 긴밀한 정책 공조, 상생의 환경 조성을 통해 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 특히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이익 공유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사태에 대비해 안보 자강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7월18일 동아일보 사설〉

평화 메신저로 한국 찾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

국가보훈처 '참전국 청소년 120명 초청 평화캠프'

국가보훈처는 6·25 참전 22개국 참전용사 후손 120명을 초청, 7월3일부터 9일까지 6박 7일간『유엔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를 개최했다. 캠프 참가자들은 7월4일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충원 참배, 국립중앙박물관, 한옥마을 등 본격적인 한국문화 탐방을 시작했다.

이들은 7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여 평화누리길 10km를 자전거로 이동, 이를 통해 캠프 참가자들은 유엔참전용사 후손이자 대한민국의 평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국경을 넘어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쟁의 참상 속에서 피어난 인류애의 상징인 흥남철수 작전의 주역인 고 포니대령의 손자 네드 포니(Ned Forney)로부터 흥남철수 작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유엔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참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참전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의미있는 행사로2017년까지 1,747명이 참가했다.

유엔 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도 개최

한편 국가보훈처는 7월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역사 및 사회교사 등 30명을 초청한 가운데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하고 전쟁이후 이룩한 오늘날의 발전상을 미국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제2회 '2018년 유엔참전국 교사 평화캠프' 도 개최했다.

유엔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에 참가한 참전용사 후손들

국가보훈처, 17개국 참전용사·유가족 초청 7월27일 유엔 참전의 날 맞아 감사 뜻 전달

Ⅰ 세계평화 위한 참전 의의 기려

국가보훈처는 7월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미국, 호주 필리핀 등 17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가족, '훈장 서훈자' 와 참전용사 유족 등 120여 명을 초청했다.

이들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을 7·27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큰 사랑과 용기를 보여준 유엔군 참전의 의의를 상기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렸으며 고 '콘라도 디. 얍' 의 딸 '이사벨 리타 얍 아가논' 씨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이룬 혁혁한 공으로 추서된 태극무공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영국의 '브라이언 패릿' 은 런던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

고 콘라도 디. 얍씨는 1950년 9월부터 1951년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필리핀 육군 제10대대전투단 전차중대장(대위)으로 참전하여 1951년 4월 22일~23일 율동 지역에서 중공군을 맞아 방어 진지를 끝까지 사수하고 장렬히 전사했다.

브라이언 패릿씨는 영국한국전참전용사협회 켄트지부회장으로, 한국전 관련 기념행사 개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국전과 관련된 많은 저술활동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에 초청된 참전용사와 그 유가족들은 7·27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이외에 7월24일 판문점을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봤으며 25일에는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어 26일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 전우들을 위해 헌화하고 기념관을 둘러봤으며 27일 저녁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감사만찬에 참석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일자리 지원

보훈처-병무청 업무협약 체결

군 복무와 연계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병무청이 7월17일 취업맞춤특기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전역예정자 정보를 국가보훈처에 제공하고 국가보훈처는 전역자에 대해 맞춤형 취업상담과 일자리를 알선한다.

국가보훈처는 군에서 익힌 기술과 연계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 광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의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역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특별한 자격이나 전공이 없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의 병역 의무자가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된 기술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병사다.

보훈칼럼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전환기적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안보상황은 전쟁 일보직전의 꽁꽁 얼어붙은 상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전세계가 핵전쟁 공포에 휩싸이며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었다.

그러던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올해를 사변적인 해' 로 만들겠다"고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청하면서 안보상황이 급반전 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계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4·27판문점선언에는 '정전협정' 의 '평화협정' 으의 연내 전환, 서해 '공동어로수역' 을 설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가히 충격적으로 변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은 국민이 남북이 '도발과 긴장' 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6·25의 역사는 소중하며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은 곧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1을 차지한다.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정도의 소국인 이스라엘은 수십 배의 인구를 가진 이슬람국들에 둘러싸여 네 차례의 전쟁을 벌였지만 모두 승리했다. 이스라엘이 강한 것은 2000년에 걸친 유랑의 역사와 홀로코스트를 똑바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북한의 6·25 전쟁을 똑바로 기억하는 것은 남북 상생과 화해 협력을 위한 디딤돌이지 걸림돌이 아니다.

매년 6월 25일이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25일을 상기하며 전쟁이 남긴 대한민국의 아픔을 보듬는 날이라면, 7월27일은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을 상기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우리나라의 참전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호국' 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보훈' 은 호국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6월26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고,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유엔참전용사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처럼, 이역만리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유엔군 참전용사의 값진 희생과 기여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또는 해외로 떠나는 휴가철이다.

그 한가운데 있는 7월 27일, 이 날은 잠시나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있게 해준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면서 6·25전쟁과 정전협정이 주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 봉 규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육군 정비창 군무원, 복지시설 봉사

육군종합정비창 차량일반장비공장 차량직장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이 7월7일 창원 북면 소재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인 소망원을 찾았다. 이날 차량직장 군무원들과 가족 등 16명은 화장실 · 목욕탕 · 창고를 청소하고 텃밭 제초 작업을 하는 등 시설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꿨다.

차량직장 군무원들은 지난 2016년 '차사랑 동아리'를 결성하고 부대 주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말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11명의 회원이 매월 한 차례 이상 시립요양병원 목욕봉사 및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여성지적장애인축구단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종합정비창의 위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 부상자 구호

육군11사단 마루대대 행정보급관 김호림 상사와 정비대대 궤도차량수리관 이동희 중사, 방도영 · 정효찬 상병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구호와 신고로 추가 사고를 예방한 사실이 경찰을 통해 알려졌다.

김 상사는 지난 5월26일 오전 9시30분께 당직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도로상에서 화물차량과 경운기의 추돌 교통사고를 목격, 사고 현장 뒤에 차를 세워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피를 흘린 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상자를 눕혀 지혈 등의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주변 행인들에게 안전통제를 부탁하며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환자의 이송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정비대대 이 중사와 두 명의 병사는 지난 5월3일에도 상급부대에서 물자 수령을 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강원도 홍천군 삼마치리 도로상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통해 생명을 구한 바 있다.

동해안 환경정화 활동

해군1함대 보급지원대대가 6월27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동해안과 동해시 일대 하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대대 장병과 군무원 2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대대 장병들에게 자연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고 동해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병들은 동해안과 지역 하천에 버려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구슬땀을 흘렸으며 정재욱 1함대 보급지원대대장은 "장병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터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봉사하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폐소생술로 승객 목숨 구해

공군17전투비행단(17전비) 의무대대에서 의무운영담당으로 근무하는 홍현화 하사가 6월28일 김포에서 제주로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53편 항공기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

홍 하사는 자신이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임을 알리고 승무원들과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승무원들에게 의료진 지원을 건의하고, 부대 군의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받아가며 제주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조치를 지속했다.

환자는 한때 심정지로 인해 극도로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렀으나 제주공항 응급의료팀에 인계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홍 하사와 승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장애인특수학교 찾아 봉사

해병대1사단 포병연대 장병들이 6월15일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장애인특수학교 포항명도학교를 찾아 현장체험학습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장병들은 학생들과 함께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원을 찾아 일일 보조교사 역할을 하며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생명, 천체, 우주 등 다양한 과학분야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병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최경섭 포항명도학교장은 "해병대 장병들 덕분에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언제나 학생들과 가족처럼 어울리며 도와주는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7월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장경두 합참의장 등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2.0'을 보고 받고 '군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이 충성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미, 6 · 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양국 발굴 유해 봉환, 고향 앞으로…

국방부는 7월13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UN군사령관, 멕케이그(Mckeague)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장, 국가보훈 예비역단체, 한 · 미 현역 장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 미 6 · 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한 지역에 남겨졌던 미국 제1기병사단 소속(카투사) 고 윤경혁 일병의 유해가 미국 하와이를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미군 유해(신원 미확인) 1구가 미국으로 돌아간다.

국군 전사자 고 윤경혁 일병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국선제(유해보관소)에 봉송된 후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고향인 대구 달성군의 선산에 모셔질 계획이며, 미군 유해는 미8군 영현소를 거쳐 미국으로 봉송될 예정이다.

고 윤경혁 일병의 유해는 지난 2001년 북한 평안남도 개천지역에서 미군 유해와 함께 발굴되었으며 미군 전사자 유해는 지난 2016년 6월 강원도 철원 잠곡리 무명 1025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발굴되었다.

국방부는 2000년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0회에 걸쳐 미군 유해 13위와 영연방 유해 3위를 미국으로 송환했으며 미국 역시 북 · 미 공동발굴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국군 전사자 유해를 지난 2012년(12위)과 2016년(15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한자어 · 일본어투 표현 등 국방 분야 부적절 용어 사라진다

국방부, 쉽고 바른 용어로 국민과 소통

앞으로는 국방 분야에서 이와 같은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을 비롯한 부적절한 용어가 사라진다.

국방부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국방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 다듬을 계획이다.

국방부 부서별로 개선할 용어를 찾아내고,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모를 통해 다듬을 필요가 있는 용어를 발굴한다. 내부 안내판과 표지판 등의 문구는 우선 바로잡기로 했다.

국방 분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여 올바른 국방 용어를 정립하는 방안을 세우고, 연말에는「국방 분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국방 기관 전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직원의 공공언어 사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국방부와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온라인 국어 전문교육(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공문서 바로쓰기 등 12개 강좌)을 각 군과 국직기관의 모든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다양한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신속한 피해복구 국민의 군대로 소임 다해

우리 군이 장마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성, 여수, 장흥, 전주, 광주, 포항, 부산지역에 재해 복구를 돕기위해 연인원 1,000여명의 장병들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삶의 터전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 부대에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향군 위상 재정립 적극 뒷받침할 것"

여성회 임원 워크숍, 안보 · 봉사 활동방향 논의

여성회 임원들이 대전국립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향군 여성회는 7월18일, 19일 13개 시 · 도회 회장과 중앙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임원 워크숍을 갖고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했다.

추순삼 여성회장은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존 장병들이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미군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률 보다 6.7배나 높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최근 조사결과를 접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전사자들 못지않게 살아남은 자의 아픔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호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향군 여성회 임원들은 이밖에 계룡대 안보시설 견학과 안보강연, 지역별 안보 및 봉사활동 방향과 계획 등을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향후 여성회 활동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

또 향군의 과거 왜곡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탈바꿈하는데 우리 여성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향군 여성회는 그동안 해외 한국전 참전용사촌 봉사활동과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 지역 내 국군 귀환용사 및 6 · 25참전용사 위문행사, 현충원 묘역 관리,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품 전달, 보훈병원 위문, 대국민 안보교육 지원, 재해지역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향군의 위상을 높여 왔다.

"6 · 25 참전용사들의 위훈 잊지 말아야"

경남 · 울산 향군, 유해 발굴 장병 위문

경남 · 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7월6일 창녕군 대지면과 유어면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현장을 찾아가 육군 제39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장병들을 위문했다.

손도수 회장은 궂은 날씨 속에 작업중인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6.25참전유공자들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창녕군 대지면과 유어면 일대는 6.25전쟁시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며,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6월5일 개토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손도수 회장

호국영령 추모,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제주도 향군,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7월7일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제5회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어린이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해병9여단 군악대의 기념공연과 호국영령 추모, 나라사랑 사생대회, 6.25사진 전시, 군 장비 전시, 태권도 시범 등으로 진행됐으며 '멋쟁이 일등병' 포토존, 나라사랑 티셔츠 만들기, 건곤감리 우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펼쳐졌다.

특히 해병 9여단이 준비한 신형전술차량(험비), 60mm 박격포 등 각종 화기류와 군 장비 전시행사에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장비체험도 병행해 참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이날 나라사랑 사생대회의 시상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각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도지사, 도교육감, 제주사령관상, 제주신보회장 등 129명에게 상장이 수여된다.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

참전 · 보훈 가족 높은 뜻 기억해야

충청북도 향군이 6월28일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위로연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향군

충청북도 향군(회장: 김정식)은 6월28일 청주 S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도내 참전 · 보훈 안보단체장 및 향군 임직원 등 250여명을 초청하여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위로연을 개최했다.

김정식 회장은 "오늘 행사는 여러분들의 위국헌신의 뜻을 받들고, 조국수호와 국가발전에 헌신해 주신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 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되어 준 참전용사, 보훈가족들의 높은 뜻은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양희 도의회 의장과 정병천 충북남부보훈지청장 등 내빈과 연병권 6.25참전유공자회 충북 지부장 등 참전용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의를 더했다.

"안보 제2보루 역할 다할 것"

경상북도 향군, 사업 분석회의

경상북도 향군 양정석 회장이 7월5일 의성 문화회관에서 가진 전반기 사업분석 회의와 윤리강령 선포식에서 "대내외 환경이 어려울수록 화합 · 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채택한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한편 확고한 안보관으로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우수회 표창수여, 윤리강령선포, 사업 분석 및 향군 주요 안보활동사항 교육, 주요사업 소개,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산시회 등 5개회가 조직발전과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다.

향군 정회원 3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 서부 향군, 미 독립기념일 타종

샌 페드로 '우정의 종각'서 한미우호 강화

미 서부 향군(지회장 김재권)이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로 샌 페드로에 위치한 '우정의 종각'에서 열린 타종식에 회장단 등 1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타종식 행사는 강대승 선생의 LA두레패 사물놀이와 지신밟기, 내빈 소개, 서도민요와 향피리 무형문화재 공연, 공군사령부 의장대 등장, 타종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재권 지회장은 "올해 독립기념일 타종 행사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샌 페드로 '우정의 종각'은 우리 정부가 한미우호의 상징을 담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 선물로 1976년 만들어 기증했다. 타종식은 독립기념일 외에도 광복절, 12월 31일 제야의 행사 때 실시된다.

캐나다 동부향군, 1회원 1인 초청… 신규회원 유치

캐나다 참전용사회장 참석 한-캐나다 향군 유대 강화

캐나다 동부 향군(지회장 송승박)은 7월14일 G. Ross Lord Park에서 회원 단합 행사를 갖고 결속을 강화했다. 이날 행사는 송승박 지회장과 회장단이 신규 회원 가입 유치를 위해 '1회원 1인 초청' 운동을 벌인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송승박 회장은 "단합행사를 통해서 회원 단합은 물론, 우리 단체를 교민사회에 알리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등 친목 모임에서도 성과를 내어 기쁘다"고 말한 뒤 "현지 '캐나다 재향군인참전용사회'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 및 협력관계를 가진 결과 전·현직 회장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등 형제와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재향군인참전용사회에서는 전·현직 회장(현직 Bill Campbell 회장, 전직 Doug Finney 회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정태인 토론토 총영사, 한인회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캐나다 동부향군은 '캐나다 재향군인참전용사회'와 이 같은 긴밀한 유대관계로 매년 6·25 기념행사 등 양국의 안보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다.

안보전략연구원 문한조 연구원

2018 세계 신지식인 선정

본회 안보전략연구원 문한조 연구원이 (사)세계신지식인협회와 국회의원 정종섭 의원실이 7월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2018 세계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문 연구원은 현역군인 시절인 2011년부터 15년까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경기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분야의 총괄적인 임무를 맡아 체육회 및 각종목별 경기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군의 우수성뿐 아니라 군 체육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전역 후 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창의적이고 성실한 안보 연구활동으로 재향군인회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다.

향군, 재해구호협회와 영등포 쪽방촌 찾아 봉사

폭염 속 고통 호소하는 주민에 냉방 구호물품 전달

향군 본부 조직복지국 직원들이 7월25일 전국재해구호협회 임직원과 폭염 속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등포 쪽방 촌 주민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조직복지국 직원들은 구호협회가 준비한 선풍기 30여대를 함께 조립하는 한편 구호물품 총 2,160개(쿨스카프 520개, 쿨수건 520개, 속옷 550개, 수건 570개)를 각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은 선풍기조차 없는 목조건물의 2평 남짓한 방과 공동 수도시설에 520명(남385, 여135)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5개 지역에 3,187명의 쪽방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봉사활동 후 향군 조직복지국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협조회의를 갖고 구호활동의 매뉴얼 소요를 검토하고 실시간 업무공유 및 재해구호 관련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향군은 7월4일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전국 재난·재해 발생시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호 및 봉사활동 수행지침'을 각급회에 전파, 상황발생시 지원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63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WS치과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47) 051-702-7588 : 비급여 20~40%
- **성북웰니스요양병원**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86) 02-3672-2233 : 비급여 30%
- **스마트치과**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010-2756-1175 : 비급여 15~20%
- **튼튼정형외과** (인천시 동구 수문통로 54-1) 032-772-3551 : 비급여 10%

기타

- **김정인법무사**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7) 033-253-1577 : 20%
- **성인천장례식장** (인천시 남구 석정로 6번길) 032-891-4444 : 20%
- **시민장례식장** (인천시 남구 석정로 64번길 22) 032-889-4644 : 20~50%
- **중앙광고기획**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6) 033-256-6333 : 20%
- **파리바게트** (청구장충점) (서울시 중구 청구로 86) 02-2252-8808 : 10%
- **하나투어** (보문점/성북구청점)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91) 1599-9153 : 3%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굿모닝백이안과**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051-862-0102 : 20%
- **나은병원** (인천시 서구 원적로 23) 032-584-4119 : 비급여 20~30%
- **누네안과병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661-1175 : 10~2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바로병원**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458) 032-722-8585 : 비급여 20%
- **부산고려병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8) 051-930-3000 : 비급여 10~2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좋은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054-245-5000 : 10~20%
- **참사랑노인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장로 1910) 043-298-9100 : 20~50%
- **WS치과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47) 051-702-7588 : 비급여 20~40%

숙박·리조트

- **렉씨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088 : 40%
-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양레저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디자인메이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23-2) 055-835-3132 : 10%
- **매니아맞춤양복** (대구시 남구 이천로 29) 053-472-3366 : 10%
- **샤르망안경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2) 033-342-0108 : 30%
- **세종장례식장** (세종시 연서면 합박로 300) 044-866-4444 : 10%
- **안양장례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양양자동차공업사**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27) 033-671-6880 : 10%
- **제주오렌지렌트카**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171-1) 064-713-0034 : 30~80%
- **조은광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2) 055-884-1800 : 20%
- **(주)북의정부자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9) 031-878-1000 : 10%
- **주연테크컴퓨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27번길 1) 055-262-2494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춘천명물닭갈비**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07) 070-8837-2069 : 5%
- **타이어뱅크신평점** (경북 구미시 원평동 560-5) 054-461-1777 : 13~20%

각급회 소식
(6월21일 ~ 7월20일)

서울시 향군

영등포구회 : 6월28일 반공순국용사위령탑을 방문, 참배 및 정화활동을 실시.

부산시 향군

금정구회 : 어린이 나라사랑교육관에서 6월22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200명)들과 함께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 해군영화 상영 및 군함 승선 체험행사.

영도구회 : 7월2일 보훈회관에서 배권효 부산시 향군 안보부장을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강연.

기장군회 : 7월11일 자매 부대인 3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서구회 : 아미동회는 7월10일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활동.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7월4일 구 · 군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회무분석회의. 7월3일 여성회는 제2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은명숙 수석부회장을 제8대 여성회장으로 선출.

서구회 : 6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유대 강화.

중구회 : 6월25일 6 · 25전쟁 제68주년을 맞이하여 국립 영천호국원 참배. 6월22, 23일 용유동 휴양소에서 동회장 세미나.

동구회 : 여성회는 6월20일 숙천동에 위치한 매실농장에서 농촌일손(매실 따기)돕기 행사. 해안동회는 7월13일 지역 내 6 · 25참전 어르신 15가구에 신라면 (50만원 상당)을 전달.

달서구회 : 여성회는 7월10일 대한E.F.R교육센터에서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교육. 7월 16일 스마트치과 의원 서구점과 업무협약 체결.

달성군회 : 7월14일 포항 신창어촌체험마을에서 향군회원 단합대회 및 하계 안보수련회.

인천시 향군

남동구회 : 7월9일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양방한방 협진 병원인 훈 병원과MOU체결. 7월2일 행주산성전적지 순례.

서구회 : 6월26일 혹구보훈의달을 맞아 포천시에 위치한 태국군 참전비 참배. 7월11일 서구 보훈회관에서 6 · 25참전 용사 및 보훈단체 회원 등 80여명을 초청, 초복을 맞아 삼계탕 대접.

부평구회 : 7월6일 늘품학교 학생 및 교사를 초청, 파주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일대 안보현장견학.

계양구회 : 7월3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김병환 시회 안보부장을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2차 확산교육.

강화군회 : 6월28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방문 및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로 임직원 안보연수.

동구회 : 7월2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신임 허영환 동구청장 맞아 주요업무 현황 보고.

중구회 : 6월22일, 23일 용유도 육군 충의휴양소에서 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경기도 향군

안산시회 : 여성회는 7월3일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소외계층 독거노인 및 6 · 25참전용사 250여명을 초청하여 삼계탕 대접.

수원시회 : 6월2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내 보훈 · 안보 단체장, 군 지휘관, 유관 기관장 50여명을 팔달구 인계동 소재 한 식당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

용인시회 : 7월11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신임 백군기 용인시장을 맞아 안보정세 및 현안업무 보고.

양주시회 : 6월25일 평택 2함대 사령부 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여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 7월9일 덕정중 학생들을 초청,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역을 둘러보는 안보 체험교육 실시.

안성시회 : 7월11일 6 · 25전쟁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으며 낙동강을 사수하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역습작전을 이끌어낸 다부동전투 전적기념관을 방문, 안보의식 고취.

안양시회 : 7월5일, 6일 태풍전망대와 경순왕릉, 호로고루성과 한탄강 재인폭포 등 안양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연천지역 안보현장 견학.

의정부시회 : 7월13일 송양 고등학교 학생 45명을 초청, 보병 제6사단 수색대대에 입소하여 병영체험훈련. 7월5일, 11일 천보중학교, 의정부중학교에서 학교의 요청으로 군 직업/진로 교육 실시.

화성 · 오산시회 : 여성회는 7월16일 충북제천 덕동계곡에서 회원 친목 도모를 위한 단합행사 가져.

강원도 향군

속초시회 : 6월28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장사동 일대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행사. 27일 마루촌 가든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을 초청, 위로잔치. 7월17일 제3땅굴, 도라 전망대, 판문점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

동해시회 : 권혁도회장 가족이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제15회 병역명문가 증서 수여식에서 병역 명문가 인증서를 받아.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6월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 6월28일 최이조 안보교수를 초청,원평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보강연. 7월9일 봉명1동회 창단식. 7월17일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6 · 25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초청 위로연.

충주시회 : 여성회는 7월13일 농협 하나로 예식장 3층에서 전몰군경 미망인들과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미망인 위로행사 가져. 7월20일 향군회관에서 도회 양태복 안보부장을 초청, 임직원 대상 안보교육 실시.

옥천군회 : 6월27일 탁정환 안보강사를 초청하여 충북산업과학고, 옥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6 · 25 바로알리기 교육.

대전·충남 향군

대전 유성구회 : 6월22일 학하초등학교에서 학생40명을 대상으로 김일용 안보교수를 초청, 대한민국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강연.

보령시회 : 7월6일 제23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여성회 이경자 사무국장이 나눔실천 상 수상. 청라면회는 6월23일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명대계곡'에서 환경정결활동 및 하계수련대회 가져.

부여군회 : 6월28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 현충원, 충주호 일대를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아산시회 : 7월11일 온양고등학교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새터민 최성경 강사를 초청, '통일의 미래로' 란 주제로 안보강연.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7월10일 연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문석 안보교수를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주제로 회원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합안보강좌 개최.

군산시회 : 7월15일 월명공원 해병대 전적비에서 거행된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참석,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을 기념하고 호국영령 추모.

전주시회 : 6월29일 씨에나와인 뷔페에서 6 · 25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제68회 6 · 25전쟁기념 및 호국영웅 위로연.

부안군회 : 6월29일 향군회관에서 전종석 안보교수를 초빙하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을 주제로 안보강연.

칠곡 향군-미 6병기대대, 자고산 303고지 추모행사

경북 칠곡군 향군이 6월22일 미 캠프 캐롤 6병기대대(대대장 윌리암스 대령)와 함께 303고지 추모행사를 갖고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한국전쟁당시 왜관 자고산 303고지에서 산화한 한미 전몰장병과 북한군에 의해 학살당한 미군 포로 희생자 42명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이날 행사는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 백선기 칠곡군수, 이병우 칠곡경찰서장, 정현웅 주한미군 제 4지역 한국군 지역대장, 권홍근 칠곡 2대대 대대장과 장병들 그리고 지역 안보단체장과 참전유공자회원, 석전중학교 학생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3고지 한미우정의 공원과 석전중학교 석송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길수 칠곡 향군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온몸을 바친 호국영령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삶의 터전인 영토도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윌리암스 6병기대대 대대장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선배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소중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협조하고 참여해준 내빈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전몰장병 자유수호의지 기려

〈8면에 이어〉

남원시회 : 여성회가 7월4일 2018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에서 우수회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 7월 17일 제17회 풍악예술제 봉사활동.

무주군회 : 여성회는 7월4일 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활동.

익산시회 : 6월29일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열린 호국보훈의 달 포상 전수식에서 국가보훈시책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국가보훈처장 표창장 수상.

고창군회 : 7월10일 태흥갈비 2층 연회실에서 도 향군 주관으로 경제안보 교육과 2차 임원확산교육.

무군주회 : 7월10일 35사단에서 추진하는 나라사랑보금자리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여 보훈가족에게 TV 기증.

완주군회 : 7월19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와 조선해양문화관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순창군회 : 7월19일 김진호 회장 취임이후 "변화된 향군" 에 대한 교육을 실시.

진안군회 : 7월10일 진안 운장산 휴양림에서 임직원 및 읍면회장단, 여성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 단합대회 가져.

정읍시회 : 7월11일 2018년 전반기 업무성과분석 회의에서 조직분야 최우수 및 안보분야 우수회로 선정되어 도회장 표창.

광주·전남 향군

해남군회 : 7월4일 박영관, 김문석 안보교수를 초청하여 관내 해남서초등학교 학생 및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 실시.

영광군회 : 7월11일 영광군 홍농읍 월평경로당에서 홀몸노인들을 위한 무료 빨래봉사활동.

영암군회 : 해군 제3함대 사령부 257기 부사관을 초청하여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영암관내 팸투어를 실시하고, 중식과 영암 특산품을 전달. 여성회는 7월13일 영암군 관내 보훈안보단체 불우 및 독거 가정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봉사활동.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7월19일 문종환 전 회장과 정경자 전 여성회장 등 전임 임원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주요 추진 업무 설명 및 의견교환.

영주시회 : 여성회는 6월24일 남서울예식장에서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개최. 7월6일 최경심 여성회장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12회 '2018년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념행사' 에서 "양성평등상" 수상.

포항시회 : 6월21일 향군후원회와 1박2일 일정으로 서북도서 장병을 위문하고 백령도 천안함 위령탑을 찾아 헌화하며 호국영웅 추모.

경산시회 : 6월29일 이원섭 안보강사를 초청, 하양여자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7월19일 조승래 안보강사를 초청, 진량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문경시회 : 여성회는 7월2일 문경읍 용배공원에서 김용배장군 서거 제67주기 추모제 거행.

경주시회 : 6월23일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대민교류 활동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방문.

경남·울산 향군

창원시의창구회 : 의창동회는 6월24일 동진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봉사.

통영시회 : 여성회는 7월8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린 제5회 통영한산대첩 전국서예대전에서 봉사활동.

남해군회 : 7월6일 상주면 상주은모래비치 송림 숲과 백사장 주변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거제시회 : 7월17일 성포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덕조 안보 교수를 초청, 청소년 호국안보 강연회. 19일에는 성포중학교 학생 대표를 초청, 진해 해군사관 학교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교육.

합천군회 : 여성회는 7월4일 합천군 초계면 군립요양원을 찾아 목욕 봉사.

진주시회 : 6월28일 정형호 사무국장이 국방부 장관 표창 받아. 7월16일 수곡면회 진해 해군잠수함 사령부 방문.

함안군회 : 7월14일 부여 공주 일대 안보현장 견학, 안보의식 고취.

산청군회 : 7월12일, 13일 인천, 강화도일대 안보현장 둘러보고 호국의지 고취.

의령군회 : 청년단은 7월17일 의령호국공원에서 제초작업 등 환경정화활동.

고성군회 : 7월10일 관내 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 견학. 7월 20일 경남 항공고등학교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문석 안보교수를 초청, 안보교육.

울산 울주군회 : 7월10일 삼동면민체육관에서 이선호 군수와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결의대회.

울산 남구회 : 7월5일부터 8일까지 2018 고래축제 기간 중 봉사활동 비용 마련을 위한 먹거리 장터 운영. 7월15일 문수산 일대에서 자연정화활동.

울산 중구회 : 7월16일 취임 인사 차 중구청장을 예방, 향군활동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김달수 회장이 6월26일 제민일보 대강당에서 제민일보 임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서귀포시 : 남원읍회는 6월30일 남원생활체육관에서 보훈 가족 1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위문잔치. 대륜동회는 7월7일 하예동 군산, 보성리 단산 오름 걷기 행사.

향군 상조회, 홈페이지 리뉴얼

뉴스레터도 발간, 고객과 소통 강화 나서

향군 상조회가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상품 정보, 상조상품으로 전환 가능한 크루즈 상품, 무료 병무 상담 멘토링 서비스 등 고객이 주로 찾는 정보들을 홈페이지 전면에 배치해, 기존 및 신규 고객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조회 고객 대상 뉴스레터를 첫 발간하며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향군 상조회 관계자는 "상조회 가입을 고려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환경으로 개선, 쉽고 빠른 정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 상조회는 최근 상조서비스 신상품 '국가대표 336', '마음든든 450', '국민감동 520'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상조(장례) 서비스와 크루즈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부지중해 3개국 크루즈' 선보여

향군 상조회가 동남아 3개국 크루즈 상품에 이어 8박 10일 일정의 서부지중해 3개국 크루즈 여행 일정을 새롭게 선보였다.

'서부지중해 크루즈'는 다음해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로마에 도착한 뒤 이탈리아 사보나, 프랑스 마르세유,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을 기항하는 상품으로 유럽을 대표하는 크루즈 선사 '코스타'가 보유한 13만 톤급의 럭셔리 크루즈 선박 '디아데마호'를 타고 진행된다. 특급호텔 수준의 다양한 문화 시설이 준비됐으며 상품가 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존 상조상품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 회원 모두 동남아크루즈, 서부 지중해 크루즈 중 여행지를 선택하여 전환 이용가능하다. 특히 월납으로 부담 없이 상조를 가입하여 장례나 여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향군 상조회는 국가보훈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 무료 병역이행 멘토링 서비스,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유골봉환 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며 상조업계에서 모범적 견인차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첨병/ 중앙고속

최첨단 프리미엄 버스 추가 도입, 마케팅 강화 … 경영 개선

안전과 친절·봉사 생활화, 재이용 고객 늘려 … 서비스 확대

프리미엄 고속버스 내부

향군 산하기업체인 중앙고속(사장 노연웅)이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위해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급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추가 구입해 마케팅 강화에 적극 나섰다.

고객 기호 맞춰 최첨단 사양 갖춘 프리미엄 버스

프리미엄 버스는 차량 가격만 2억7천만원에 달하며, 차선 이탈 경보장치(LDWS), 자동 긴급제동 체계(A-EBS)가 구비되어 있어 현존하는 버스 중 최고의 버스로 평가받고 있다. 차량 내 설비는 불이 안 붙는 방염 자재만 썼다. 또한 좌석이 21석으로 28석인 우등버스보다 개인별 공간이 넓고 안락한 게 특징이다. 개인 좌석의 앞 뒤 공간을 대폭 늘렸고, 최대 165°까지 기울여지는 전 자동 좌석 조정, 조절식 목 베개 부착, 고급화된 좌석 시트를 비롯해 항공 비즈니스석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등고속버스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한 첨단 차량이다. 아울러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좌석별 보호쉘과 옆좌석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트북이나 서류를 볼 수 있는 좌석별 테이블, 개인용 독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승객의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의 설비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여행 중에도 즐길 거리가 없던 우등고속과는 달리 전 좌석에 설치된 개별 모니터를 통해 영화와 TV, 음악, 게임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인천공항-양양 노선 신설, 고객서비스 확대

중앙고속은 7월18일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중앙고속 차량정비공장에서 최신형 프리미엄 버스 5대에 대한 운행 개소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중앙고속은 2016년에 구입한 5대와 2017년에는 구입한 14대를 포함하여 모두 24대의 프리미엄 버스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앙고속은 프리미엄 버스를 경부선의 경우 서울에서 대구, 진주, 창원, 부산, 마산, 세종, 강릉 간 노선에, 호남선의 경우는 서울에서 광주, 전주, 성남에서 광주 간 노선에서 운행해 왔으며 그간 최상의 안락함과 안정성에 만족한 프리미엄 버스 이용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었다.

이번에 구입한 프리미엄 버스는 7월20일부터 서울-창원, 서울-세종, 서울-전주노선에 추가 투입됐다. 그리고 그간 꾸준히 수요가 예측되어 왔던 강원도 강릉과 속초, 양양, 고성 일대 주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과 양양을 운행하는 신규노선을 이날부터 개통, 프리미엄 버스를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서비스에 나섰다.

인천공항과 양양을 운행하는 프리미엄 버스 운행시각은 양양 출발이 아침 6시50분과 12시30분이고 인천공항(2터미널) 출발이 12시10분과 오후 6시로서 각각 1일 2회 운행된다.

노연웅 중앙고속 사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사훈인 안전과 친절, 봉사를 생활화해 중앙고속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승객은 반드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북 비핵화 과정 강력한 한미동맹 필요"

성우회, 한국국방연구원과 안보세미나
브룩스 사령관, 기조연설

성우회(회장 유삼남)가 7월25일 한국국방연구원(원장 노훈)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동북아 정세진단과 대주변국 안보협력 방향'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남-북, 미-북간 성공적인 대화와 협상분위기를 조성해 왔다"며 "적의 무수한 도발에 맞서 최첨단 능력을 시험해 왔고 지난 연말 북의 미사일 실험 당시 1950년대의 한국군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간 파트너십으로 외교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강조하면서 "1년 전이라면 예상 못할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한 번의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다양한 장관급 회의 등 한미동맹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지속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압박능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의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군사적 파트너십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발전과정에서 기지 이전 같은 작은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뿌리내린 나무의 가지일 뿐이며 한미동맹은 매우 건강하고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힘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이주여성에 생계비 지원

다문화가정에 장학금도

고엽제전우회가 7월18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제21회 고엽제의 날 '전우 만남의 장'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 이주여성 생계비 1,600만원(16명 각 100만원)과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800만원(16명, 각 50만원)을 지원했다. 또 이날 광주 숭일고등학교에 장학금 일천만원도 기탁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갑종장교전우회** : 8월10일 회 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24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자문위원회의.
▶**포병전우회** : 8월9일 효창공원에서 자연보호행사. 23일 남한산성에서 역사탐방행사.
▶**해병대전우회** : 8월11일 창원 진동리 전적비에서 진동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12일 통영 원문고개 전적비에서 통영상륙작전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8월17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하반기 운영위원회의.

친목단체 활동

동락전투 기념행사

대한민국 6 · 25참전유공자회(회장 박희모)는 7월7일 6 · 25 전쟁 첫 전승이었던 "동락전투"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를 거행했다.

병과창설 70주년 기념행사

병참동우회(회장 조국연)는 7월10일 육군회관에서 · 2018년도 정기총회 및 병참병과 창설 7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군산·이리·장항지구 전승 추모제

해병대전우회(회장 이호연)는 7월15일에 군산 은파전적비에서 군산 · 이리 · 장항지구 전승 추모제를 거행했다.

총 동문회관 제막식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성건)는 6월22일 학군교내에 단기간부사관 총 동문회관 제막식을 가졌다.

성일환 회장 취임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회장 성일환)는 6월21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일환(공군대장)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정기총회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민병숙)는 6월27일 전쟁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선배 포병전우 추모

포병전우회(회장 김태영)는 6월 26일, 27일 6. 25 전쟁 당시 의정부, 강릉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선배 포병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창설 23주년 기념 동반

정보동우회(회장 박상수)는 지난 6월20일 서울대공원에서 창설 23주년 기념 서리플 등산을 실시했다

고 김교수 대위 추모행사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7월13일 철원 월정리역 앞 '고 김교수 대위 공적비'에서 김교수 대위 및 6중대원 추모행사를 가졌다.

병과 창설 행사

육군정보통신장교 동우회(회장 임창호)는 지난 6월15일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열린 정보통신병과 창설 제7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여행정보

8월에 가볼만한 곳

□부산 바다축제

부산 바다축제가 8월1일부터 5일까지 시내 주요 5개 해수욕장(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에서 열린다.

부산은 사계절 사랑받는 관광도시지만 특히, 여름이 되면 부산, 그중에서도 부산의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다.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해수욕장은 각 해수욕장의 색깔을 담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부산바다축제는 부산시민 그리고 부산의 바다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사랑받고 있다.

〈부산광역시/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051-501-6051〉

□통영한산대첩축제

세계 4대 해전 중 가장 위대한 해전이었던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성웅 이충무공의 구국정신을 기리고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통영한산대첩축제가 8월10일부터 14일까지 동양의 나폴리 경남 통영시 통영 해안로에서 열린다.

축제에는 조선시대 통제사가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 수군을 통영 앞바다에 총 집결시켜 군사를 점검하는 군점 행사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 행렬, 한산대첩 재현 등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병법을 실감케 하는 멋진 광경이 연출된다.

아울러 다양한 여름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한려수도 바다축제행사가 함께 열려 색다른 여름이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통영시/한산대첩기념사업회 055-644-5222〉

□영월 동강축제

동강축제가 강원 영월군 동강둔치 일원에서 8월2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동강축제는 옛날 한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되던 뗏목을 소재로 60년대까지 남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수단이자 교통수단으로 숱한 사람들의 땀과 애환이 배어있는 삶의 모습을 재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1997년 시작됐다.

천혜의 비경 동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단종대왕, 김삿갓에 얽힌 역사 · 문화 탐방과 레프팅,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다.

〈영월군청/영월문화재단 033-375-6353〉

전우여! 어디에 …

• 6.25당시 1사단 12연대에서 근무하고 화령장 전투에 참전하신 분 중에 고향이 김천이시고 일등 중사였던 김철규씨를 아시는 분을 찾습니다.
〈010-7697-7749〉

• 조춘(여 군무원)씨가 6 • 25 전쟁 중 전남지구병사구사령부 행정과, 동원과에서 근무했던 문순자(여 군무원)씨를 비롯한 여러 장병들을 찾습니다.
〈010-9104-3409〉

• 이삼지씨가 월남전 102후송병원 검역반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용인 예비역 상사를 찾습니다. 〈010-2523-3321〉

• 김창진씨가 1986년~1988년 7사단 항공대 같이 근무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010-6221-2589〉

• 은종재씨가 1992년 30사단 115기보 2중대 2소대에서 근무한 소삼영 병장, 최준삼 일병 등 전우들을 찾습니다.
〈010-2076-8255〉

• 김경찬씨가 1992년 전역한 91여단117대대 1중대 영광출신 배성룡 병장을 찾습니다. 〈010-6512-9693〉

※전우를 찾으신 분들은 재향군인신문 편집실로 연락바랍니다 (02-416-0923)

향군장학기금

※ 기간 : 6월 22일 ~ 7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대구시재향군인회여성회 전 회장 김복순 33(323)
• 경상북도 경주시재향군인회 회원 배금원 10(50)
• 산하업체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30)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7)
• 일반회원 ㈜대창농축 오승훈 1(25)
• 일반회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25)
• 일반회원 이종섭 1(14)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미래 1(22)
• 일반회원 우리은행 태릉지점 신현정 2(8)

▶ 정기 기부
• 경기도 양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오상억 3(189)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37)
• 일반회원 이정호 1(246)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주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고혈압」, 체중조절·식이요법·운동과 적절한 약물요법 등 치료 필요

혈압 이란 심장 박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혈관 내부의 압력으로 혈액이 전신을 순환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뜻한다. 심장이 수축 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수축기 혈압, 확장 시에 나타나는 혈압을 확장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혈압은 120/80mmHg와 같이 표시하며, 120은 수축기 혈압, 80은 확장기 혈압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고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증상

고혈압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단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두통, 어지러움, 졸립거나 의식장애, 손과 발의 감각장애나 마비, 호흡 곤란, 가슴 통증, 얼굴과 사지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장 뿐 만이 아니라 혈관이 있는 우리 신체 내의 모든 기관에 광범위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원인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일차성(본태성)과 신장질환, 갑상선질환과 같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이차성으로 나눠지지만 고혈압환자의 95%가 본태성으로서 특별한 한가지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여러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고혈압은 유전되며 연령, 비만, 염분에 대한 감수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짜게 먹는 식습관,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및 과다한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짭짤하고 얼큰하게 먹는 습관이 있게 되면 염분의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염분이 몸 안에 섭취 되면 혈관내로 수분을 끌어들여 혈관 내 혈액량의 증가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혈관을 자극하게 되면 혈액순환의 부담으로 부종과 함께 혈압상승을 촉진하게 되어 심장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예방법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염분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균형있는 식사, 야채식 그리고 저지방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관리가 필요하다.

치료방법

고혈압의 치료는 단순한 혈압의 감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혈압을 감소시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며, 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인 당뇨,흡연, 고지질증 등을 동시에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에는 체중조절, 식이요법, 운동과 적절한 약물 요법 등이 있고, 여기에 환자 본인의 확고한 치료의지가 필요하다.